

1999. 12. 29.

달천댐 건설 반대 건의문(안)

충주시의회

달천댐건설반대건의문(안)

존경하는 () 님

21세기를 향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 님
노고에 대해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98년의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용기를 잃고 좌절과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에 찬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한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에 많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2개월 여전부터 불거져나온 「달천댐건설」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22만 충주시민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1985년도에 건설된 충주댐과 조정지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충주댐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1천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로서의 자긍심으로 묵묵히 견디어 왔습니다.

충주댐은 전국 제2의 다목적 댐으로 유역면적 6,648km²로 저수량 27억 5천만 톤으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민들에게 많은 생활환경 변화와 가슴아픈 상처를 주면서 건설되었습니다.

건설당시 우리 충주시에만 1,950만평이 수몰되고 3개 시·군민 7,105세대 38,663명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혈육과 같은 이웃사촌들과 뿔뿔이 흩어져 낯선 타향으로 이주한 쓰라린 경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댐과 조정지댐 주변 지역은 댐건설 이전보다 안개일수가 37일에서 81일로 44일이 증가되고

일조량도 연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300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하여 농작물 수확감소에 따른 소득저하와 교통사고증가, 시민건강위해등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90년도 대홍수를 겪었으며 수도권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인, 허가 및 개발제한을 받는 등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98년 8월 20일 팔당호상수원수질 개선종합대책 발표와 5개면 18리 28.8km²의 수변구역 지정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의 “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우리 충주시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달천댐 건설」을 위한 입지조사를 하였다는 그 자체에 우리 충주시민들은 허탈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신선한 “국민의 정부”신뢰 이미지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 님!

지난 '99년 12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님으로부터 “달천댐 건설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개발 입지 조사와 현재 건설중인 중부내륙고속도로의 댐 건설 예정지 교량이 105m의 최대 홍수수위로 건설되고 있음은 “절대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여되어있음은 22만 우리 충주시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22만 충주시민을 대표하여 “달천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 달천댐 건설이 현실화 될 경우 22만 충주시민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댐건설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이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고 판단됩니다.

“달천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9. 12. 29.

충북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